

## 버츄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콘서트 타이포로고&심볼 리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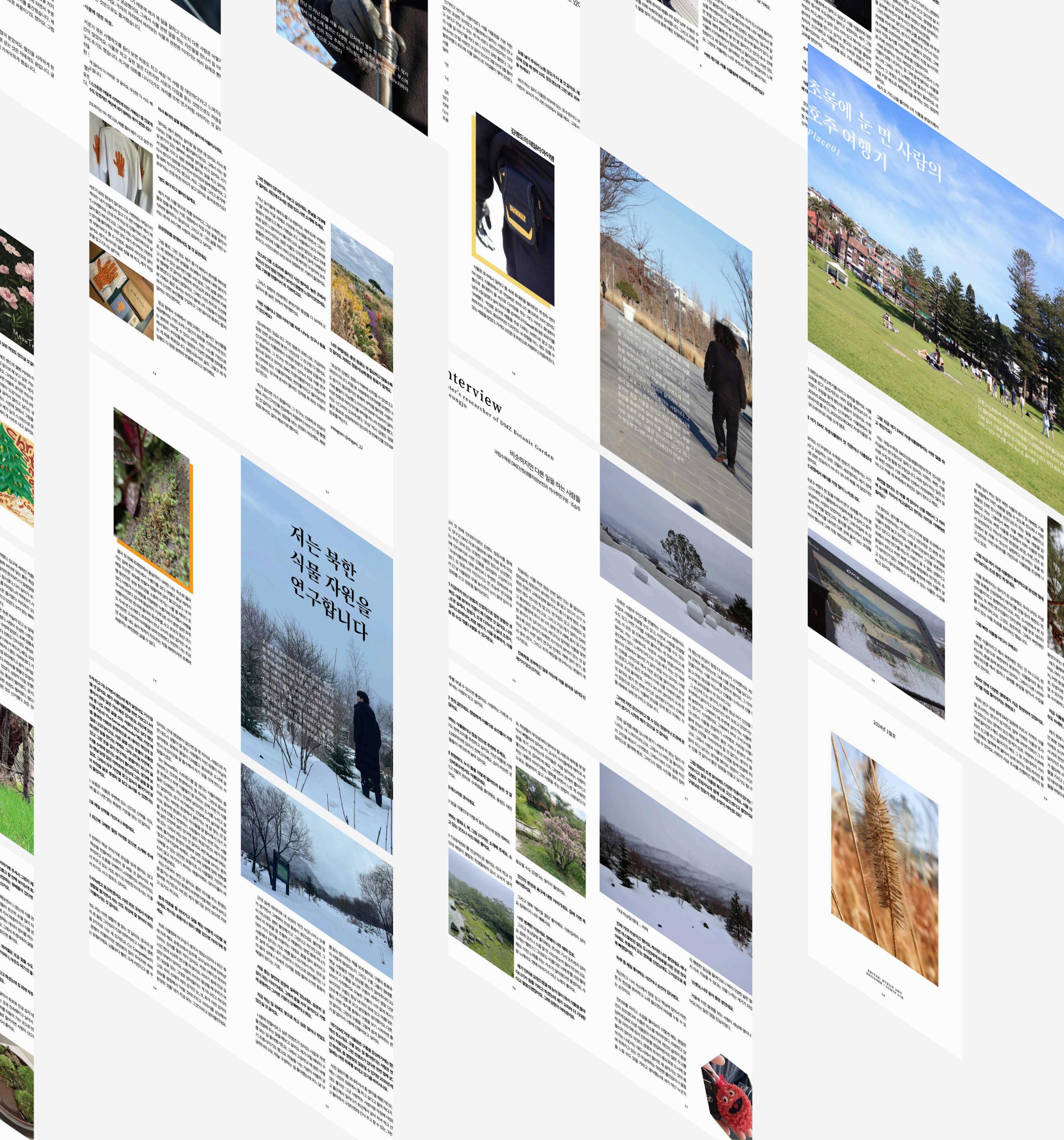
'플레이브'는 현실과 판타지가 융합된 버추얼 아이돌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콘서트 타이포 로고와 이미지를 리디자인하며,  
기존의 도트 이미지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디자인에서 벗어나 세  
계관을 반영한 보다 팬 친화적인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 About

2024. 02.20 ~ 05.04

개인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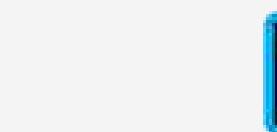
# 웹진 '초심' 북 디자인

식물 웹진 '초심'의 이벤트성 북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반복되는 색상의 식물 사진이 많아 사진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미지 위치와 크기로 지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About

2024. 12.20 ~ 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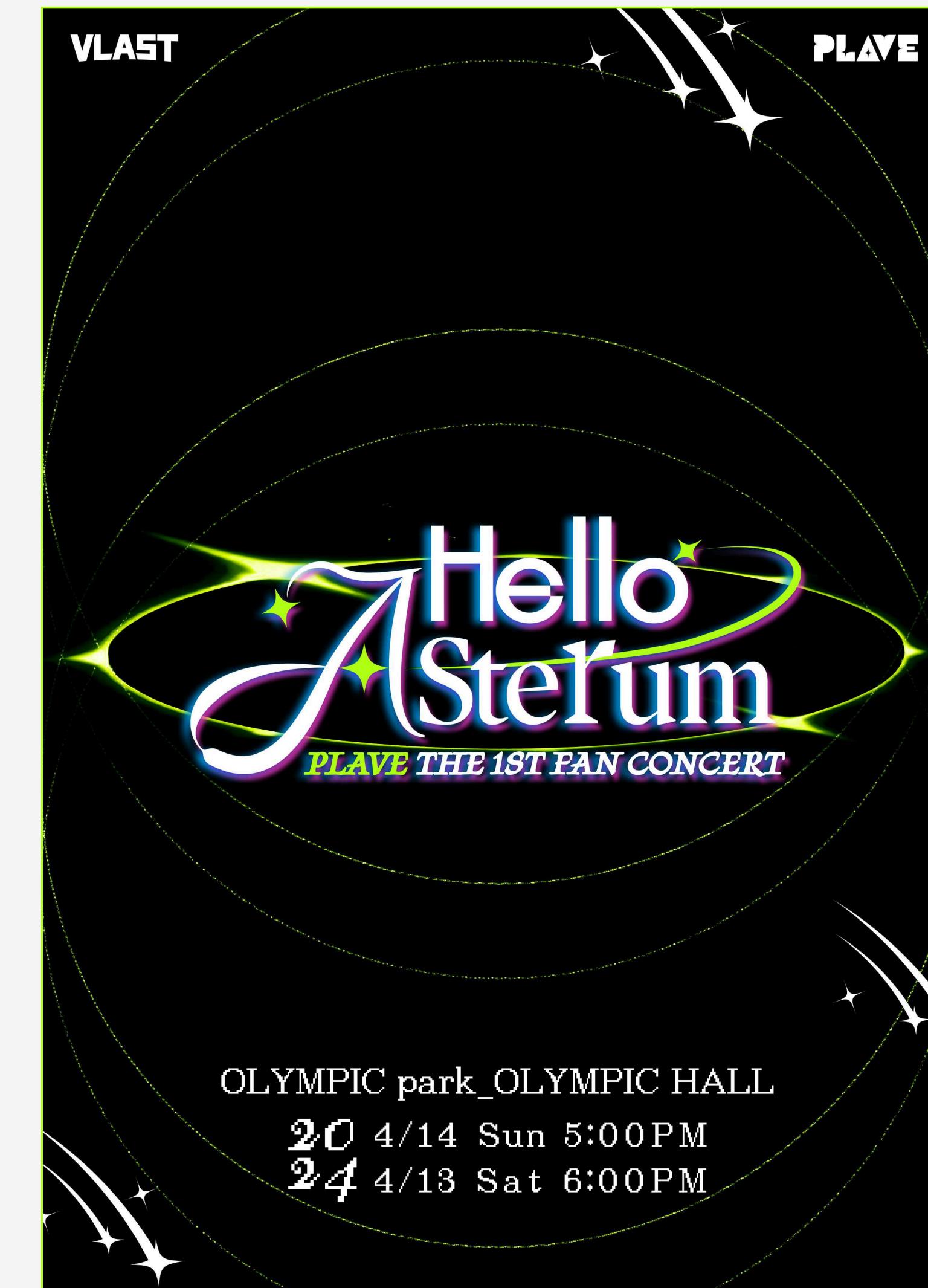
개인 100%



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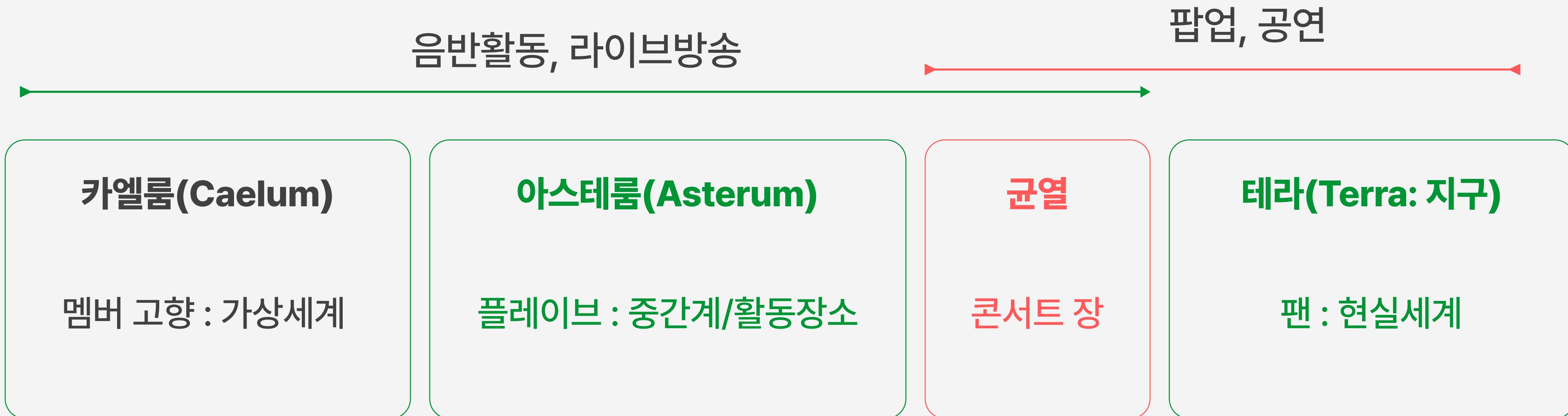


TO-BE





## ❖ 세계관



가상세계 카엘룸(Caelum)에 살던 멤버들이 지구의 개발자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  
아스테룸(Asterum)이라는 신비한 중간계로 오게 되었고, 아스테룸에 존재하는 균열을 통해 테라(Terra: 지구)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The image shows an open book with a dark cover featuring a close-up of green fern fronds. The title 'Ch...' and '식물에 대한 마음' are visible at the top. A vertical column of Korean text on the left side of the cover reads: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식물과 관련된 이야기'. The date '2024년 1월호' is at the top right. The left page of the book contains a large, stylized illustration of a cactus in a red planter, with the text '저 타샤튜더의 삶 꿈꿔도 될까요' and 'EPISODE 2' overlaid. The right page features a pink rose illustration and a pencil sketch of a blue flower.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right page has the signature 'MoonTrio'.

**정원사님은 집 외에 자주 가는 곳 있으세요?**

제가 클라이밍을 하고 있어서 식물원 근처에 있는 암장에 자주 가고, 땀이 나면 연차를 써서 식물원이나 정원을 보러 다녀요. 방문한 곳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요.

**클라이밍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암벽 타기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클라이밍을 배우고 싶었어요. 서울 식물원에 오면서 시작했는데 인상에 큰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갑니다.

**하루 종일 노동하고 또 운동을 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몸으로 뭔가 하는 걸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쉴 때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희는 일단 주말에 출근하는 날이 많아요. 주말에 관람객분들이 더 많이 오시니까요. 또 여름에는 매일 관수가 필요한 곳도 있어요. 주 6일 근무를 하면 하루 쉬는 거니까 집안일하고 나면 집이나 카페에서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두신 일러스트 작업물들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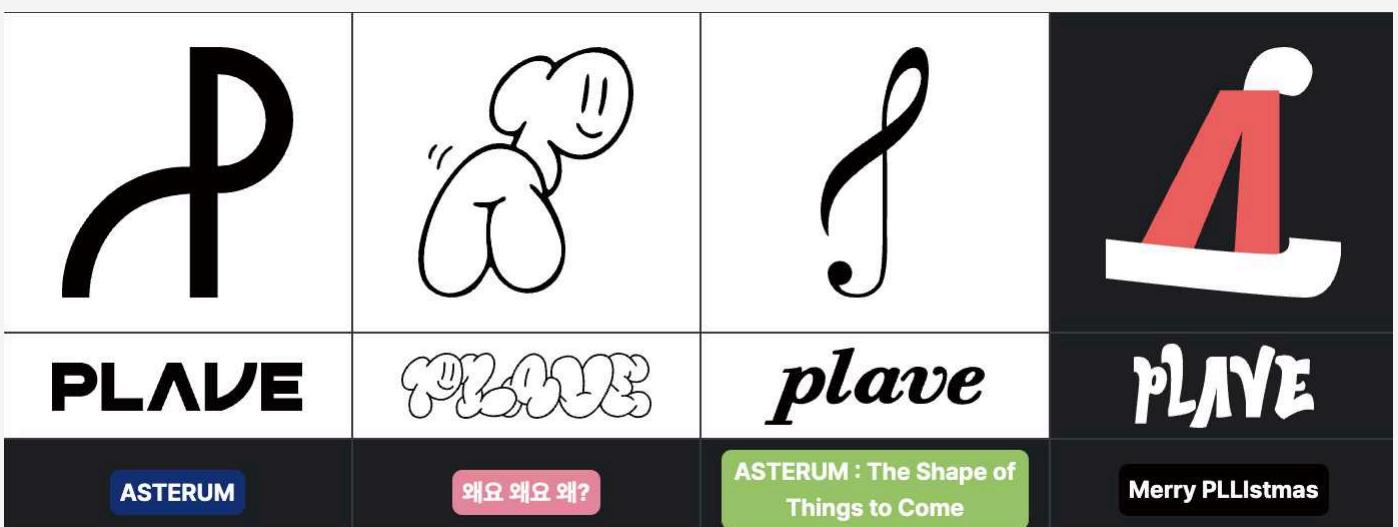
우선 'Moon trio'라는 재즈 밴드의 앨범 커버와 아트워크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인스타툰도 그려보고 싶어요. 제가 식물원에서 하는 일을 알려보면 어떨까 생각은하는데 안 하고 있네요.(웃음) 제 작가명이 '도감'이라 우리나라 자생식물이나 특이한 식물을 글려서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고, 새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실크 스크린으로 옷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 개 시리즈 내고 싶어요. 하고

**Merry Christmas dogam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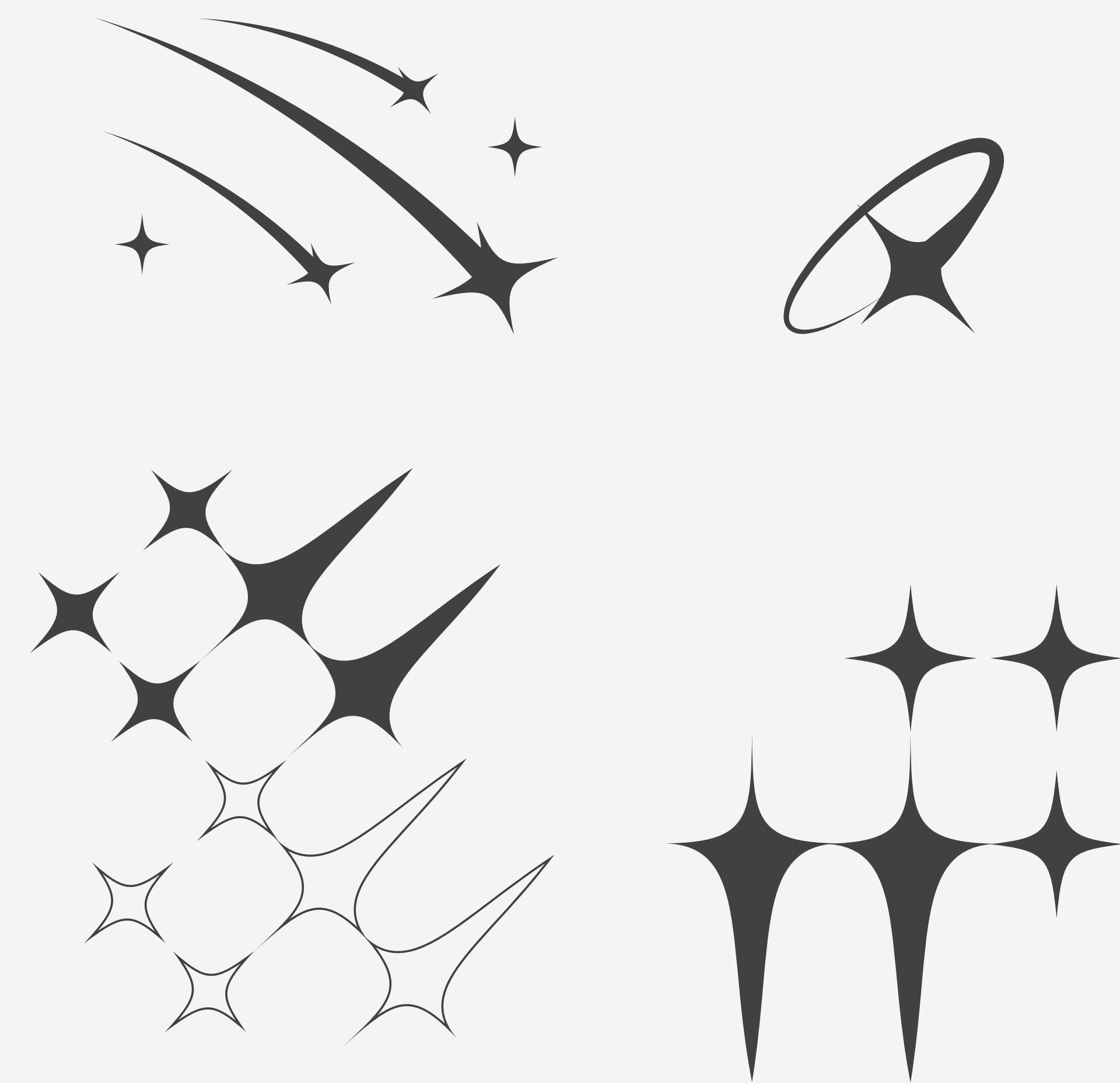
## 유성-팬의 사랑 별의 조각

세계관 속 뮤직비디오에 보여지는  
유성,별 = 팬의 사랑  
컴백 라이브에서 한 설명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플레이브 로고와 유성이라는 키워드를 더해  
콘서트의 주인공인 여행자 플리와 멤버를 함께 표현  
했습니다.





# 퇴근 후 출근하는 정원사 김병도

EPISODE 1

김병도 정원사는 처음 만난 건 지난 10월 서울 식물원 근처에서 열린 한 마켓이었다. 당시 나는 식물 경매로 참여해서 내 부스에 들르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놀라 있었어. 부스에 온 김병도 정원사는 옥수수밭에서 이미 작업 주체이 어느정도 가능했다. 인사 나누자마자 식물 관련 일을 하니 그들이 놀라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Interview

Gardener of Seoul Botanical Garden  
KIM BYUNG DO

'서울 식물원에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어요'

신기하고 반가운 사람이었다. 서울 식물원을 기본 적은 업지만 궁금한点多었고, 식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정원사였지만 각자

의식을 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다. 그냥

보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

팔로우했다. 피드에 서울 일간스트 작업들이 많이 있었다.

서울 식물원도 궁금하고, 식물 그림을 그리며 식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궁금해졌다.

언제 한번 서울 식물원 투어 시켜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식물원에 들어보니까 갑자 정원이 되었던데 최근에는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김병도 정원사는 휴무일에 식물원에서 만나 전제를 들었다. 식물 세밀화를 그리는 조현진 작가님도 동행했다. 우려에 허루를 내려온 마음에 감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려 인터뷰를 요청하고 12월 초주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김병도 정원사를 만났다.

정원이 12평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단기간에 식재가 가능한가요?

요즘 날이 추워서 노동 강도가 더 세 것 같아요. 제가 최

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정원사였지만 각자

제가 하는 일이 식물원 외부에 있는 호수원이다 보니까

국한의 날씨가 아니면 아래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방한

에 신경을 많이 쓰고 외부로 나와요. 거의 스키 복장으로

나오죠. 내가 다 입고 핫팩도 적용하고 나와요. 너무 추우

면 이동하는 트럭에서 잠깐 쉬기도 하고요.

그 누구보다 육방이 가득한 분이시네요.

(웃음) 내가 관리하는데 내가 그 절정을 못 보여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시키지는 않았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꽃이 방해받은 피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이미 늦어서 못 보거든요. 수련 개화 시기가 되면 저녁 시간에 살피고 있고 오신 분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저녁 시간에 제가 한 10번 넘게 밤에 호수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개화한 걸 본 적은 없어요. 흐리거나 비가 온 날에는 빌리세요. 및 광장에 인강한 것 같아요.

빅토리아 수련처럼 또 애들이 가는 식물이 있나요?

이번에 서울 식물원에 가시면서 들어왔어요. 가시연은 저희 자생종이고 빅토리아 수련이랑 외관은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꽃은 확실히 아름한 편이고 처음 키워봤는데 대형화 저체가 잘 키웠어요. 한 주인데 꽃苞을 어이며 미하게 많이 밟았고 종자를 잘 채집해서 한 4-500기는 얻은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꽃苞은 저녁 온실에 전달드렸어요. 꽃苞이 많으면 재배 온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해보실 수 있거든요. 가시연은 우리 자생 꽃으로 분위기가 나서 애들이 많이 가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꽃의 절정의 순간을 볼 수 있어요. 정원 꽃들의 절정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저도 직원이 아니라면 못 봤을 텐데 식물원을 둘다 보니 언제 절정인지 대략 아니니까 안 놓치고 꼭 보려고 해요. 개화 전후 과정까지 다 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제가 빅토리아 수련이 개화하는 걸 보려고 퇴근하고 다시 식물원에 온 적도 많아요. 8월부터 개화가 시작되는데 저녁 8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로 피어요. 한 개체에서 여러 개의 꽃봉오리가 계속 풀리오고, 이를 정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언제 피는지 정확한 시간을 모르니까 매일 확인하고 오늘 저녁에 피겠다 싶으면 뛰어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식물원에 와요. 개화가 가서 보려고 가슴 장까지 쟁겨서 밤에 호수원에 들어가는 거죠.

## 님아, 그 빛을 비추지 마오

김병도 정원사가 빅토리아 수련을 키우면서 갖게 된?

식물원에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다면요?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만 볼 수 있으니깐 그즈음에 호수원에 있는 빅토리아 수련을 기다면서 새로운 모습을 관찰하게 됐어요. 수련이 개화가 끝까지 잘 될 때도 있고 안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꽃이 생기고 개화를 하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적사광선을 받아야 하고 물도 최소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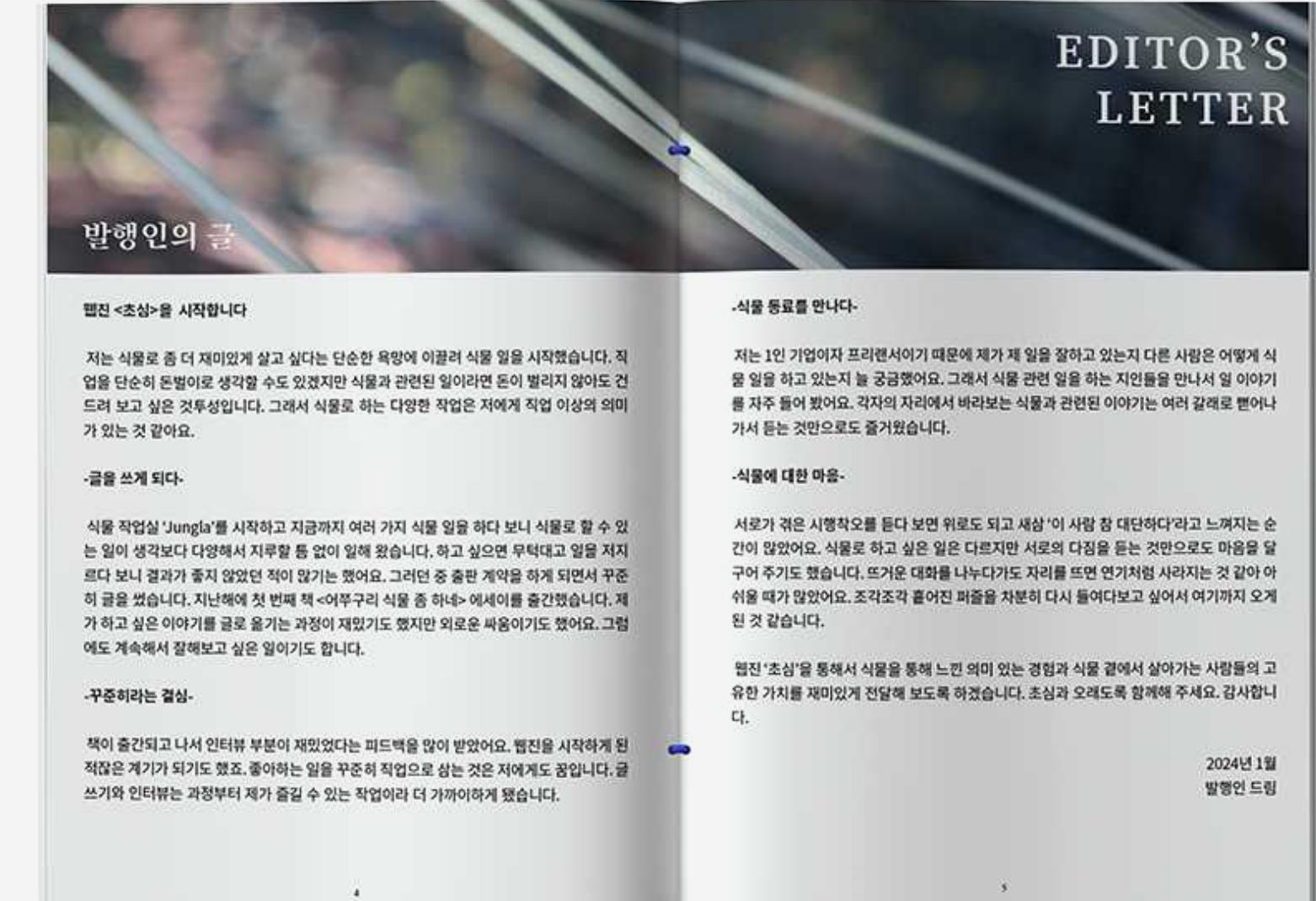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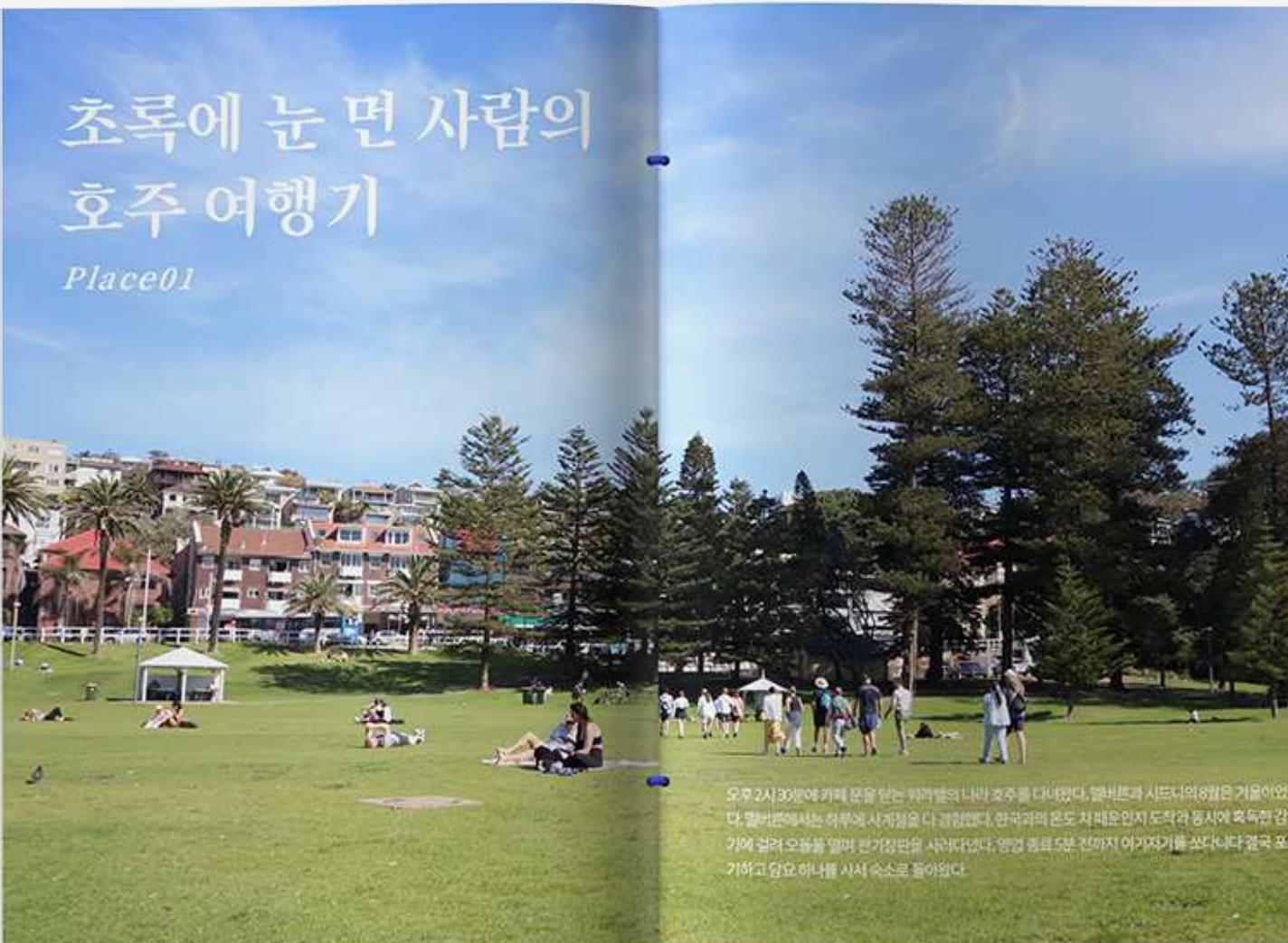
도 이상으로 관리해 줘야 하는 식물이에요. 물도 흐르지 않게 해주고 깨끗하게 관리해 줘야 하고 호수원은 흐르는 물이어서인지 온실에 있는 것보다 좀 덜 자라는 것 같은 해요.

그리고 비료도 적정한 양이 들어가서 사색히 녹아야 합니다. 보통 빅토리아 수련이 8월에서 10월 중 저녁 시간에 피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개화가 끝까지 잘 되는데 안 그런 날도 있었죠.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빛의 양이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개화할 조건에 비가 와서 사람들이 빅토리아 수련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날은 완벽하게 개화를 하고, 사람이 많은 날은 일이 끝까지 잘 안 퍼지는 현상을 봤어요. 좀 더 자세히 그때를 돌아보면, 수련 개화 시기가 되면 저녁 시간에 호수원 대크에 가에라 삼각대를 들고 오신 분들이 행장을 아세요. 수련이 있는 주변이 깨끗하게 둘러싸여요.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꽃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꽃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수련이 개화를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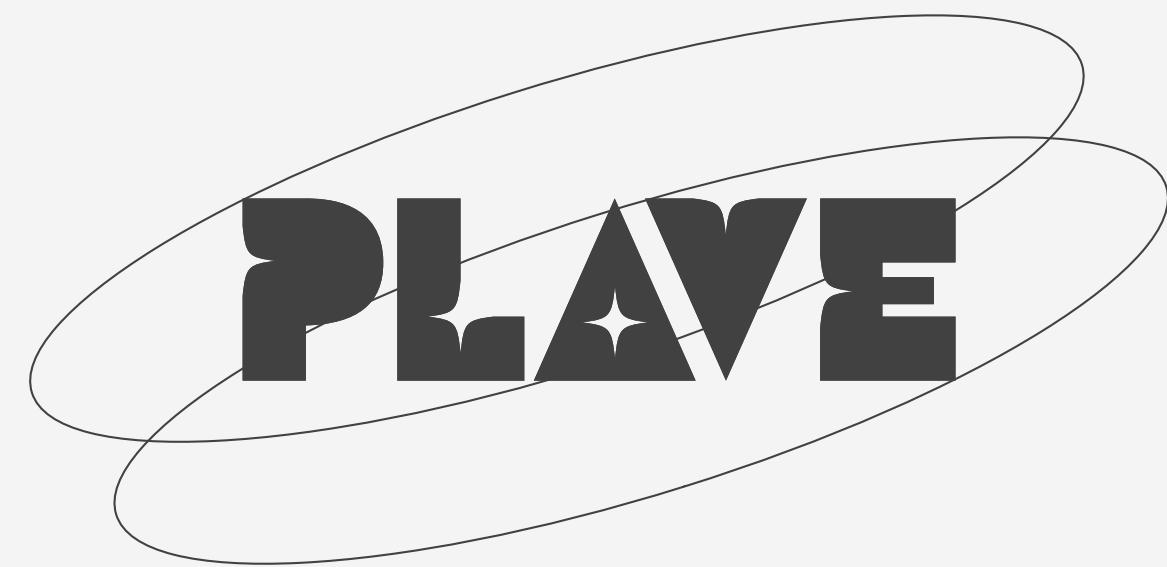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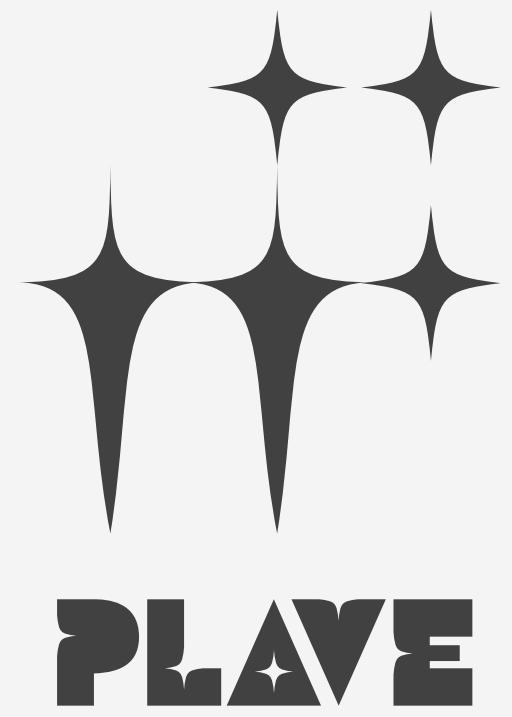
## Concert title

유성 꼬리로 감싸는 형태의 타이틀



## Group title (Consert ver.)

텍스트에 새겨진 별=멤버  
아스테룸과 테라 사이의 균열 개념에서  
벤다이어그램의 겹치는 부분을 균열로 보고  
팬과 '플레이브'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표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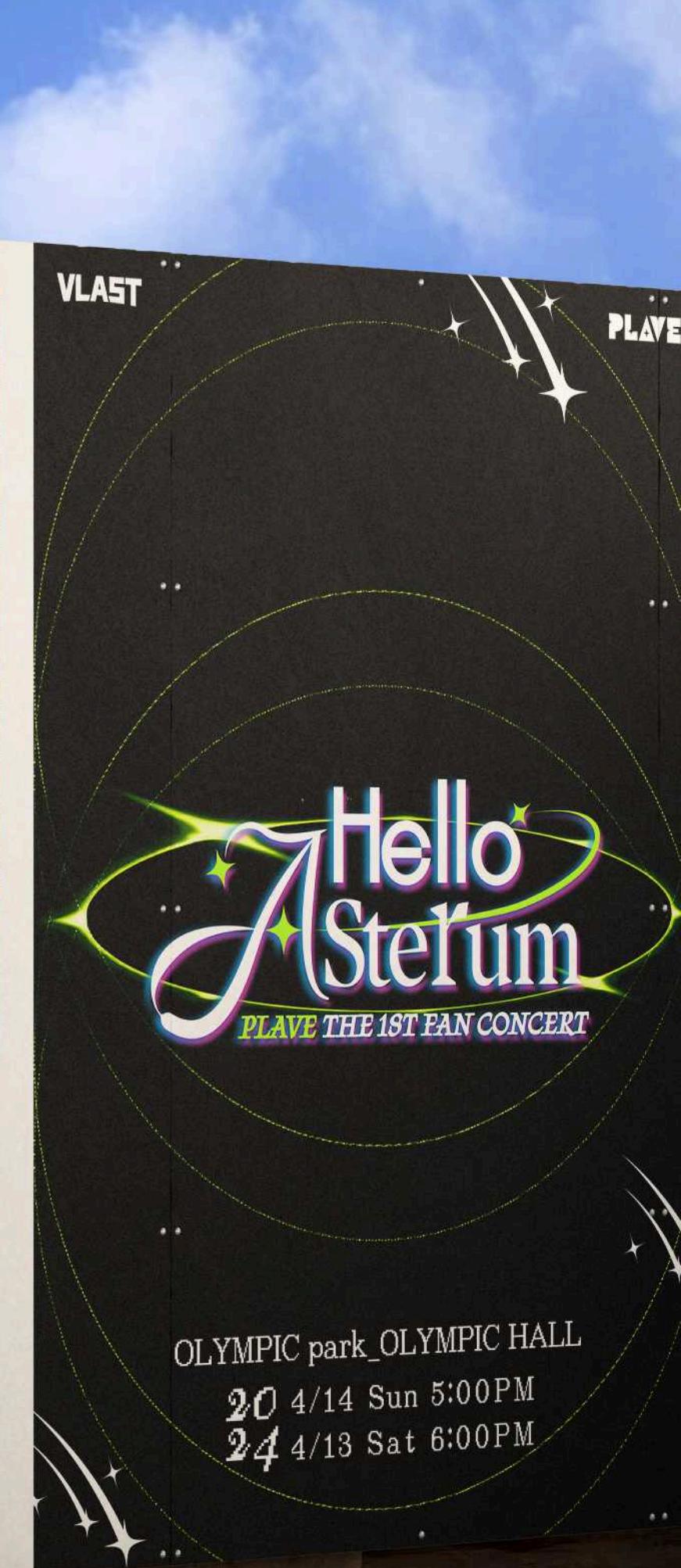


## Group Logo(Consert ver.)

동일한 크기의 별 5개 = 멤버  
유성 꼬리를 더해 기존 로고와 연속성을 주  
려했습니다.

# Design Reflections Posters and Prints

앞에서 제작된 요소와 로고를 반영한  
메인 포스터, 인물 중심 인쇄물



'플레이브' 콘서트  
타이포&로고 리디자인



'플레이브' 콘서트  
타이포&로고 리디자인





## 버츄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콘서트 굿즈 기획, 디자인

'플레이브' 첫 번째 콘서트의 타이포 로고와 이미지를 리디자인과 함께  
진행되었던 콘서트용 굿즈와 목업 합성입니다.  
직접 플레 이브와 할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행 온 팬이라는 설정으로 일상에서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은  
로고 플레이 굿즈를 기획했습니다.

## About

2024. 02.20 ~ 05.04

개인 100%



## Travel goods (Main)



## Travel Goods Set

이어플러그, 수면용 안대, 목베개, 파우치 -이 모든 것을 담을 짐색

# Clothes



후디, 티셔츠, 모자 모두 기본 적인 로고와 심플한 블랙, 그레이로 구성했습니다.

# Clothes



후디, 티셔츠, 모자 모두 기본 적인 로고와 심플한 블랙, 그레이로 구성했습니다.

# Acc



**Enamel Pin Badge A ver.**

메인 콘서트 플레이브 버전 에나멜 핀버튼 입니다.



**Enamel Pin Badge B ver.**

메인 콘서트 로고 버전 에나멜 핀버튼 입니다.



**미니 파우치 백**

휴대폰이나, 지갑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여행 시 가볍게 메고 다닐 미니 파우치 백입니다.